

# 10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과장

## “10월 중순까지 하락세와 함께 2중시세 형성 예상”

오름세의 계란값에 대해 시각의 차가 큰 것 같다. 생산자는 그저 오르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물가당국에서는 우려의 눈치로 압력을 가해오는 2중의 양상 속에서 과연 진정한 난가정책을 위한 누구의 생각이 옳을 것인가. 당국의 자세를 제쳐두고라도 채란인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비 인하를 위해 재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나 대부분 현재의 여건에 안주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물론 국내 물가의 지속적인 앙등 속에서도 계란값만 제자리 걸음을 한 상태에서 요즘 조금 올라다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물가당국의 자세가 전환되길 바란다.

□ 병아리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금년 8월까지 초생 추사료량이 39,866%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10% 증가하였다. 작년 11월이후 금년 1월까지 증가세에서 2

~3월은 예년수준을 유지한후 4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산란사료는 8월까지 실적이 961,099%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6월까지의 예년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7월 이후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계란값이 폭등한 계기가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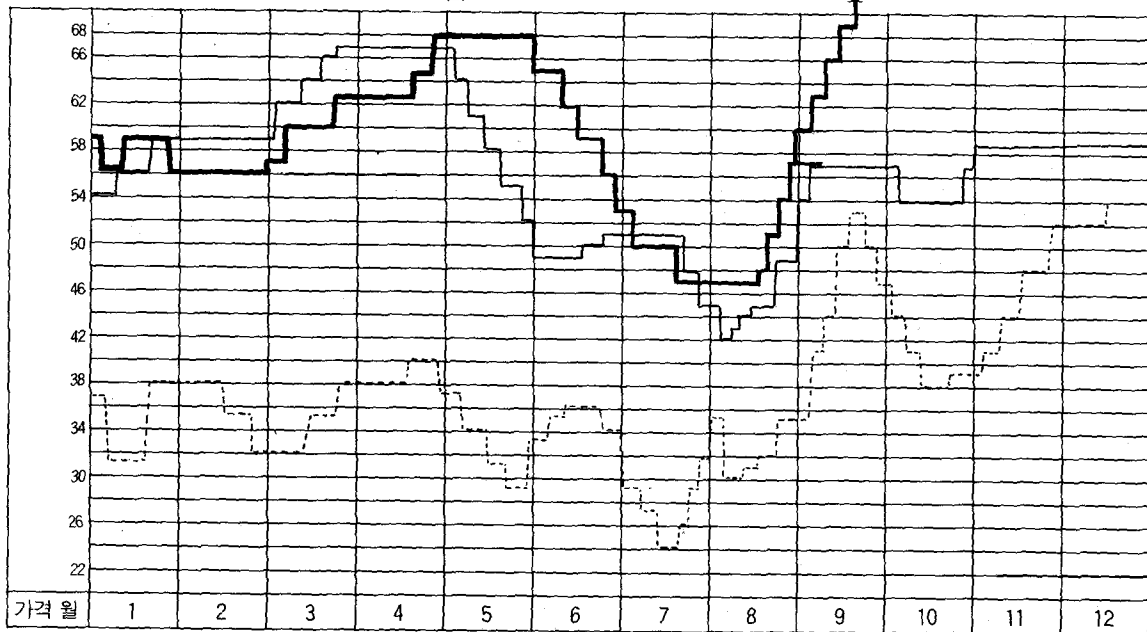
□ 장마의 후유증으로 채소류값의 폭등과 더불어 국내 물가가 피부로 느낄 만큼 전반적인 오름세로 값싼 계란의 소비가 급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비가 지속되면 추석 이후 일시적인 계란값 하락이 예상되지만 서서히 계란값 회복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특란값이 80원을 상회하는 고난가시대가 유지되면서 개당 수익성이 상승함에 따라 산란기간을 상당기간 연장시킬 수 있어 계란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계도태량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계값이 하락한 것은 육계값 폭락으로 오히려 노계값이 더 좋은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70원대의 계란값이 형성될 때 노계도태물량이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란생산량은 급격한 증가와 함께 난가약세가 일시에 물량증가와 함께 노계값 폭락의 악순환이 재현될 것 같고 특히 육계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 영향을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노계값은 계란값에 상관없이 약세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병아리값은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사상최고의 시세에 육박할 정도로 강세가 예상되며 물량 또한 입추열기 과열로 부족상태가 가을추 입추시즌이 끝나는 11월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총 계 입식수수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9.2	41.9	32.6	20.1	38.3	92.8	27.8	42.8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420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2,229	2,229	2,405	2,127					

그림 1. 대란고시가격 (개당)



'88 --- '89 — '90 -.-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